

최저임금으로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맥도날드 라이더

김태호 발행인



최저임금 1만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개정판

박정훈 지음 | 2018년 7월 | 240쪽 | 박종철출판사

1.

2012년 대통령 선거에 한 여성 청소 노동자가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 지부장 김순자. 선거운동본부 ‘순캠’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후보로 내세운 선본답게 “최저임금 1만원”, “온 국민 안식년 제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얻은 표만 보자면 커다란 의미를 남겼다고 할 수 없겠지만, ‘순캠’에 모였던 젊은이들의 이후 운동은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2013년 1월 1일 ‘비정규불안정노동자와 함께하는 알바연대’ (‘알바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는 단 한 명의 기자도 없었다”(182쪽).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알바연대는 새벽에 편의점이나 PC방을 돌며 알바를 만나 실태를 조사했고, 세상에 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렸다. 그리고 2013년 8월 5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설립됐다.

2014년 3월에 나온 박정훈의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은 알바연대의 활동을 알리고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책이었다. 기획자로 되어 있는 “권문석”은 알바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앞장서다 2013년 여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4년에 나온 그 책의 개정판이다. “낡은 통계자료들을 최근 통계자료로” 바꾸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예전보다 많이 오르면서 등장한 새로운 논쟁 지점”을 추가했다(11쪽).

2.

지금도 그런 용어가 쓰이는지 모르겠으나, 1980년대 운동권에는 ‘시각 교정용 도서’라는 것이 있었다. 주입되어 지니고 있던 생각을 뒤흔들 만한 책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감추어져 있던 사건을 파헤치거나 처참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을 담은 책이었다. 결국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책을 그렇게 불렀다.

초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이 그랬듯이 개정판 『최저임금 1만원』도 경어체로 되어 있다.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독자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분위기다. 말하자면 이 책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시각 교정용 도서’로 기획된 듯하다.

3.

제1장(“알바생 vs. 알바노동자”)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 사회에서 “알바”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다. “망한 인생의 상징일까? 자유의 상징일까?”

저자는 “알바노동 자체에 이중적인 성격이 존재하기도”(31쪽)한다고 본다. 수입과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처지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는 정규직보다 자유롭다는 것이다.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이 스탠딩이 프레카리아트를 두고 “희생자로서의 정체성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이중 정체성”(『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 출판사, 12쪽)이라 한 것과 유사하다 하겠다.

아울러 저자는 “알바생”이라는 표현에 담긴 편견을 폭로하고 “알바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알바노동”이 “학생이 부업으로 하는 일쯤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34쪽). 실제로 현재 알바노동자는 학생 연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알바생”이라 여기면서 여러 갑질이 벌어진다. 권문석의 삶을 다룬 얼마 전에 나온 책 제목이 『‘알바생’ 아니고 ‘알바노동자’입니다』다.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필자는 다름 예로도 보여 준다. “청소 노동자는 한 시간 7,359원, 이견회는 하루 3 억원이 당연하다?”, “노동조합은 빨갱이가 하는 짓?”, “일은 군필자가 잘한다?” 필자는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가 주는 가상”이라 말한다.

4.

“제2장 프레카리아트의 탄생”은 왜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61쪽)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최근 추세인 “노동유연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알바”라 한다. 그리고 “정규직은 왜 사라졌나?”라는 질문에 1929년 “세계대공황”, 완전고용 사회를 꿈꿀 수 있었던 “황금기 자본주의”, “베트남전쟁”, “오일쇼크”,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금융산업 발전”에 이르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 답한다. 결론은 “거품경제로 인한 절망과 프레카리아트의 탄생”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81쪽)

5.

책의 제목이기도 한 제3장 “최저임금 1만원”은 왜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임금이란 무엇인지, 또한 “적절한 임금”이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노동력의 적정가격, 곧 적절한 임금이란 그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곧 노동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

용”(88쪽)이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력의 가격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곧 노동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일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 1만원이다.

그런 다음,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을 소개한다. 정부, 노동계, 재계 각각을 9명이 대표하는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활동 과정 중에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이 등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결정된다. 재계 위원이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 위원이 대폭 인상을 주장하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내놓는 소폭 인상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대기업만 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PC방 운영주를 포함한 이른바 “영세자영업자”들도 알바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심성이 따뜻한 우리 알바노동자들은 사장님을 걱정한다(96쪽).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다양하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결국 인상 효과는 사라진다고도 한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이 감소된다고도 한다. 필자는 이런 경제적 논거들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일 뿐이라며 자료를 동원해 하나하나 비판한다. 물론 이제까지 이런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온 경제학 이론도 비판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책의 본령이 아니다.

필자가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경제와 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저

임금 1만원'이 “주권자들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다지는 작업”(124쪽)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교육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124쪽)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먹고 살 만한 월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를 바꿀 ‘최저임금 1만원’은 정말 가능할 것일까? “‘최저임금 1만원’의 가능성”에 대해 답하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 가져올 “노동시간과 고용의 변화, 소비 증가, 인플레이션, 승수 효과, 경제성장,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영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의 변화, 교육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들을 고려한 세련된 모델”이 필요하지만, 필자는 “몇 가지 예상 가능한 변화와 희망적인 바람을 중심으로” 답한다(129쪽 이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대기업-가맹점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면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6.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액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임기 안에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9년 임금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했다. 열심히 올리면 공약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 책이 나온 것은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제4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2014년 『알바들이 유쾌한 반란』 당시에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른 직후에 생겨난 필자가 말하는 쟁점들은 이렇다. “쟁점 0. 언론의 도 넘은 최저임금 때리기” “쟁점 1. ‘최저임금 1만원’ 과 노동 시간 단축, 무엇을 지지할 것인가?” “쟁점 2.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의 전환” “쟁점 3.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쟁점 4. 임대료의 해결책, 토지보유세” “쟁점 5. 노조의 힘 강화, 근로감독의 강화.”

필자가 “쟁점 3”으로 다루었던 문제가 2018년 5월 28일 법률 “계약”(164쪽)의 방식으로 2018년 5월 18일에 벌어졌다. “최저임금 삭감법.” 필자가 이때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부르는 이름이다. 상여금과 심지어 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결정됐다는 비판에 양보한 꼴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냉혹하게 거칠게 말한다. “박근혜의 꿈을 문재인이 이루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침으로 하려던 일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그렇게 말할 만도 하다.

7.

제5장과 6장은 필자와 동료들의 활동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제5장은 알바연대의 출범, 알바노조 등록, 업주들이 알바노조에 가한 여러 가지 횡포, 최초의 단체협상, 맥도날드 매장 점거,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과 청와대 근처 신문문에서의 고공농성, 국회 앞 단식투쟁 등을 보고하고 있다.

제6장은 이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하다. 제2기 알바노조 위원장이었던 필자가 현재 맥도날드에 배달 알바로 취업하며 겪는 일을 담았다. 전통인 모양이다. 알바노조 초대 위원장이었던 구교현도 위원장 시절 맥도날드 라이더로 일했고, 그때의 일을 『월간 좌파』 2013년 10월호 「구라이더의 알바기」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적이 있다.

“햄버거 대신 배달한 노조”는 현재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맥도날드 분회가 되었고, 나아가 라이더유니온(준)이 되었다. 박정훈은 이 책의 저자로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라이더유니온(준) 활동가로서는 유명하다. SNS에서는 물론이고 공중파 출연도 여러 차례 있었고 강연도 활발히 다닌다.

8.

‘맥 라이더’의 이 저서는 결국 이 시대 주권운동의 하나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알바노동운동의 전망”(206쪽)이라는 이름 아래 요약되어 있고 뒤표지도 장식하고 있는 구절은 이렇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대국민 캠페인 운동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임금노동자가 아닌 사장님, 고임금노동자, 학생 등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1만원’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임금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경제 정의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주권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적 가치입니다.

필자는 올여름 ‘폭염 수당’을 요구하고 폭풍이 칠 때는 배달을 쉬자며 “기본소득은 안전”이라고 설파했다. 라이더의 주권운동에 깊이 공감한다. 시대